

국내 미술·디자인계 대학의 색채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a Reform Measure
and Present Situation of Color Education
in Fine Art and Design College

곽대웅
(郭大雄)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산업공예과

이 논문은 1995학년도 홍익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론

2. 대학 색채교육의 현황 분석

2-1. 교과과정의 편성문제 분석

- 2-1-1. 형태교육과 색채교육의 평형문제
- 2-1-2. 색채이론과 실기교육의 평형문제
- 2-1-3. 전공구분에 따르는 교육내용의 문제

2-2. 색채교육환경과 교육도구의 문제 분석

- 2-2-1. 강의실의 문제
- 2-2-2. 교재 및 교육도구의 문제

2-3. 수강생과 교수의 문제 분석

- 2-3-1. 수강생의 문제
- 2-3-2. 담당교수의 문제

3. 색채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

3-1. 색채교육 전담교수의 확보

3-2. 색채교육과정의 강화

- 3-2-1. 수업량과 학습과 실천우선의 색채교육
- 3-2-2. 수업단계의 합리화

3-3. 교육방법의 개선과 바람직한 수업범위

- 3-3-1. 교육방법의 개선
- 3-3-2. 바람직한 수업범위
 - 기초과정
 - 발전 및 심화과정
 - 심화과정(디자인 계열)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Color" education aimed at cultivating creativeness and expressive techniques in the education of visual art, in the college of art and design, should be balanced with "form" education; nevertheless, the present situation at Korean universities is such that the overall environments of "color" education are far too inferior to those of "form" education.

The problem is, among other things, that the curriculum of visual art education is centered around formal education; in addition, color education courses consist mostly of theoretical issues, not experimental, first-hand experience oriented activities that are best suited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guage of color as a visual language, thereby making it difficult to expect the efficiency of education.

Particularly, it is a serious problem that the courses dealing with color are not offered in a step-by-step fashion, from the most elementary, to the intermediate, working up to the most advanced level. Another problem is that those people involved in color education seldom have an expertise in their area; furthermor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educational tools, and the content of the textbooks are far from being ideal.

Moreover, it is a grim reality that most color theory courses that have been offered end up being a lecture of "general, basic" color theories, ignoring the students' diverse specialization areas.

As a way of normalizing color education, rationalizing the curriculum and initiating the professorship exclusively teaching color education have to be introduced, so that we can increase the depth of color education and individualize the contents of color education according to the students' needs. It is believ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color-education-only" professorship will greatly facilitate our effort to devise an efficient educational method, to determine the scope of individualized color education, and to improve the overall educational environment (such as facilities, instruments, and teaching materials) necessary for an in-depth education.

1. 서론

오늘날의 생활은 과거보다도 색채와 더욱 깊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물체 뿐만 아니라 생활의 환경, 광고 등에 색채는 범람하고 있으며, 칼라 TV의 보급에 따라 수많은 시각정보조차도 색채로 읽게 되었다.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빛과 색채를 우리들의 생활 속에 더하여 주고 있으므로 그만큼 색채의 효과도 더욱 다차원적인 것이 되었다. 도시와 건축의 환경, 의복과 자동차 등 생활용품, 인쇄 또는 영상으로 된 각종 시각정보에서 색채의 역할이 매우 크며, 이들 모두가 디자인의 대상들이고 보면 디자이너 교육에서는 색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비중이 날이 갈수록 더 커져 가고 있다.

색채는 채광 또는 조명의 상태와 질, 보는 거리, 색면의 크기, 적용된 형태 등의 영향이나 시야 속에 함께 보이는 다른 색채들의 끊임없는 동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색채를 다루기 위한 간단한 공식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색채의 특수성은 조형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색채교육이 이론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실험에 의한 체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된다. 뿐만 아니라 색채가 우리에게 끼치는 심리적, 생리적 영향은 색채의 기능적 효용에서는 물론이고 질병을 색채로 치료하는 효과(색채요법)를 얻을 수 있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큰 것이어서 색채가 현대인에게는 조형언어로서의 가치 이상의 연구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조형예술 교육에서 색채교육의 비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신중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대학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색채교육의 경향은 형태 중심의 교육과 평형을 이루지 못한 채 매우 형식적이고 단편적이며 이론적이다.

색채는 지각적이며 표현적인 힘을 지닌 것이므로 이론으로 교육될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으로 교육되어야 할 대상이다.

본고는 현재 국내의 4년제 미술·디자인계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색채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되는 것이며, 색채교육의 교과과정과 색채교육 담당 교수의 전문성 문제, 세분된 전공에 따르는 교육범위의 문제, 교육의 심도를 높이기 위한 교재 및 도구와 시설의 문제 등을 연구범위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조형예술 교육에서 창의력의 배양과 표현기술의 역량을 양성하기 위한 색채교육은 꼭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교육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연구의 방법은 각 대학의 미술·디자인계 학과의 색채 교과과정의 조사, 색채교육 환경 및 교육방법과 범위, 색채교육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의 조사, 색채과목의 수강생들에 대한 반응 조사 등

현장 조사 및 면담 조사와 본고 필자의 20여년에 걸친 색채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역대 세계적 권위를 지닌 색채교육자들의 저술에 대한 문헌 조사내용을 참고로 한다.

2. 대학 색채교육의 현황 분석

2-1 교과과정의 편성문제 분석

교육에 있어서 교과과정은 교육효과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요소가 된다. 여기에서는 형태교육과 색채교육의 평형문제와 색채의 이론교육과 색채의 실험(실기)교육의 평형문제, 전공별 교육내용의 범위문제를 다룬다.

2-1-1. 형태교육과 색채교육의 평형문제

모든 조형예술의 처리를 위한 조형언어는 색채언어와 형태언어이다. 따라서 조형예술 교육에서 이 두가지 조형언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며, 그 교육의 비중도 평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각 대학의 미술·디자인계열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표1>에서와 같이 형태언어 교육과 색채언어 교육의 교과목의 수로 보나, 수업시간의 양으로 보나 전혀 평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형태언어 측면의 교육에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어서 색채언어의 교육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현재 각 대학의 색채교육은 과거의 상황만도 못하다. '70년대 중반기 이전까지는 색채교과목이 두학기·1주당 2시간의 전공필수 과목으로 수업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으나 몇 개 대학이 실험대학 체제로 바뀌면서 한학기·1주당 3시간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변경되기 시작했으며, 이 경향은 전국대학으로 파급되었다. 또 '90년대초부터는 강의시간이 주당 2시간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과목도 대개는 '색채학' 또는 '색채론'으로 일관된 이론 교과목일 뿐이다. '60년대말에 홍익대학 공예학부에 '색채관리' 과목이 최초로 등장하였으나 그 영향은 다른 대학으로 파급되지 못한채 현재 2개 대학에 색채관리가 개설되어 있으며, '90년 이후 색채 실험실습과 이론강의를 병행하는 '색채연습(한학기, 주 4시간)'이 등장되고 있으나 3개 대학에서가 고작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형태연구 중심의 교과목은 실험실기 교과목으로 두학기 연속의 주당 4시간 개설이 일반적이며, 그 과목은 소묘·드로잉·제도·도화·평면조형(구성)·입체조형(구성)·표현기법(조형연구)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서 평면조형 과목에서는 약

간의 기초적인 색채실습이 병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 기초범위의 색채실습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인간이 취학전(만 3~5세)에는 형태보다도 색채의 강한 지각적 매력에 의해 색채를 사물판단의 결정적 수단으로 삼으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수록 색채보다도 형태에 더 의존하도록 훈련되어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물판단의 결정적 수단은 점점 형태쪽으로 기울게 된다고 한다.¹⁾

이러한 경향의 타성이 대학의 미술교육에까지 나타나 형태교육 중심의 미술교육 경향이 고착된 것으로 가정해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학의 미술교육의 기초과정에서는 오히려 형태중심의 교과목보다도 색채중심의 교과목에 비중을 더 두어야 형태언어 구사력과 색채언어 구사력의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공식적인 사례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조형예술의 형식을 이루는 양대요소는 형태와 색채라고 알고 있으며, 여전히 형태우위의 교육이 계속되어왔다.

〈표1〉 형태와 색채과목의 개설 비교표

1995현재	
<p>형태중심의 교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또는 드로잉, 정밀묘사) · 제도(도학 포함) · 입체조형(입체구성) · 표현기법(조형연구) <p>----- 두학기/주 4시간 실기/계열교양과목</p>	<p>색채중심의 교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학(론) · 색채관리 * · 색채연습 ** <p>----- * 색채관리: 2개교 개설 한학기/주 2~3시간 이론/전공선택과목 ** 색채연습: 3개교 개설 한학기/주 3~4시간 실기/전공선택과목</p>
<p>· 평면조형 (평면구성) 두학기/주 4시간 실기/계열교양</p>	

· 회화과는 소묘(두학기/주6시간), 드로잉(두학기/주3시간) 별도개설

2-1-2. 색채이론과 실기교육의 평형문제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교과과정상의 문제는 형태중심의 교과목이 두학기 개설의 실기과목인데 반하여 색채과목은 한학기만 개설되는 이론과목이라는 점이다. 한학기, 또는 두학기 개설의 문제보다도, 색채 전문교과목을 이론으로만 배정하여 색채이론과 색채실습(실기) 교육이 평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은 교육성과의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다.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 요세프 알베르스(Josef Albers), 메이틀랜드 그레이브스(Maitland Graves) 등 역대 색채교육의 권

1) 루돌프 아르하임,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홍성사(1981) 434쪽

위자들이 한결같이 색채의 실험실습을 주창한 것은 미묘한 색채의 특성들이 이론으로는 좀처럼 납득시킬 수 없는 부조리성을 지녔고, 색채가 표현적이며 또 감성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형태구사의 능력배양을 이론교육만으로는 전혀 달성할 수 없다는 이치와도 같은 것이다.

다음에 적은 저명한 색채연구자들의 말에서도 색채교육에 있어서 실험실습의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 할 수 있다.

음악과 문학의 좋은 감식을 위하여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색채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연습과 수련에 의하여 성장한다. 그 하나하나의 심미안의 표현을 위한 배출구이다. 즉 재간없게 또는 재간있게 사용될 하나의 언어이다. — Albert H. Munsell²⁾

드물게 보는 참된 천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술에 있어서의 위대한 성취는 즉흥적인 충동에 따르지 않는다. 수련과 훈련의 시기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충동에 의한 색채표현은 피아노 키를 두들기는 어린아이를 연상케 할 것이다. 묵화와 서예작품을 완성하는데는 수분밖에 걸리지 않을 때가 흔히 있지만 그 예술가가 준비하는 데는 수년씩 걸리는 것이다. …… 색채의 조화와 색채의 원리, 그것으로 실험하는 일, 그것을 아는 일은 미술가나 디자이너 — 그의 타고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 의 능력을 키워주며, 색채의 새롭고 독창적인 차원에 이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미리 훈련을 쌓은 다음 그것과 인연을 끊고 자기 자신의 것을 위한 모험을 할 수 있다. — Faber Birren³⁾

실험실습으로 색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은 수없이 많다. 이론만으로 교육된 색채교육의 결과로 빚어지는 한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고학년의 제품디자인 수업에서 도장될 승용물의 색채계획을 제시할 때 지정색의 한계색 선정과 “색의 삼속성에 의한 표시방법”⁴⁾ 도 구사하지 않은채 실제의 도료로 된 견본색이 아닌 인쇄잉크 견본색의 색표로 지정색의 견본을 제시하는 일이 다반사로 있는 것이다. 이런 단편적인 사례에서도 이론만의 색채교육이 디자인 전공실기의 수업수준을 본격화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파버 비렌 편, 윤일주 역 <먼셀·색채의 문법> 민음사(1977) 44쪽
 3) 위의 책, 70·78쪽
 4) ‘색의 삼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은 1965년에 KS규정으로 정한 바 있고 ‘먼셀표색법’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색채는 항상 그 색채가 처한 조건에 따라 그 효과가 변하는 것이며, “소위 색채의 법칙이라는 것도 복잡하고도 부조리한 색채효과 앞에서는 분명히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⁵⁾는 사실을 인정하면 색채취급의 재능이 이론강의에 위탁하여 양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색채수업은 반드시 이론과 실험실습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현재와 같은 이론중심의 색채교과목 개설은 당연히 절대 수업량의 부족이라는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표1. 참조>

2-1-3. 전공구분에 따르는 교육내용의 범위문제

실용예술인 디자인 전공과정의 색채교육이 비실용예술인 순수미술 전공과정의 색채교육과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같을 수가 없다. 색채의 물리, 생리, 심리 등 색채과학의 기초내용과 색채미학의 탐구영역은 실용예술이건 비실용예술이건 구분없이 알아야 할 공통내용이 되지만 실용예술인 디자인전공의 색채교육에서는 디자인내용에 직결되는 여러가지 색채취급(조사 및 계획, 색채설계, 시색공정 등)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그 내용은 ‘색채조절’과 ‘색채관리’의 영역이 된다. 제품관련 디자인(시각디자인 포함)전공에서는 색채관리를, 환경관련 디자인(건축, 도시계획 포함)전공에서는 색채조절을 최종 색채교육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각 디자인계 대학의 교과과정을 보면 색채관리를 개설한 대학은 극소수(2개 대학)이며, 요즈음 점차 늘고있는 실내디자인(실내건축)학과조차도 색채조절을 개설한 대학은 한 곳도 없으며, 한결같이 색채학(또는 색채론) 이론과목을 한학기 개설해 놓고있는 상태이다. 즉, 색채의 기초이론은 있으나 발전 및 심화과정의 이론 강의조차 개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색채관리과목을 개설한 극소수의 대학의 경우라 하더라도 기초적 색채과목(색채학·색채연습)을 우선수업 과목으로 제도화하지 못하여 색채관리의 본론강의는 불가능하며 기초적 색채학강의와 다를바 없는 교육내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H대학교 미술대학의 경우를 예로 들면(본고 필자의 경험) 실험대학 실시이전(1976년)까지는 디자인계열 학과에 색채관리가 전공 필수 과목으로 두학기동안 개설(2학년, 1주 2시간)되어 있었으므로 첫학기에는 기초 색채학과 색채관리 개론을 강의하고 다음학기에 색채관리의 본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77년부터 한학기(1주 3시간, 전공선택과목) 개설과목으로 변경되어 색채관리의 본론 내용까지 수업진도를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90년부터는 수업시간이 주당 2시간(2

학점)으로 더욱 축소된채 지금에 이르렀다.

따라서 색채학 3학점의 이수가 필수조건으로 되어있는 미술교과목 신청자들은 색채과목 개설학과를 비꾸어가며 대동소이한 두 과목을 중복수강해야 하는 기현상까지도 생겼다.

디자인전공의 색채학습에는 산업기술적 측면, 기업적 측면, 소비자 및 시장의 문제, 환경색의 문제, 유행색에 따르는 색채경향의 문제, 디자인물의 기능과 색채이미지의 관련문제 등 순수미술의 색채학습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구성이 필요한 것이지만 현재 각 대학의 디자인 전공학과에서 강의되고 있는 색채과목의 내용은 순수미술 전공에서와 구별되지 않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 원인은 전공구분 없이 혼합된 수강생의 문제(통합강의)와 짧은 강의시간 배당의 사정에서 우선 발견되고 있다.

2-2. 색채교육환경과 교육도구의 문제 분석

2-2-1. 강의실의 문제

이론강의로 설정된 색채과목의 강의실은 당연히 일반강의실로 배정되고 있으며, 담당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시청각실이 배정되기도 한다. 계열학과가 많은 대학의 경우는 학과 구분없이 합동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수강생의 수나 수강분위기는 전공과목 강의라기 보다도 교양과목 강의실과 흡사하다.

수강생의 수가 120명을 넘는 경우는 분반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개강후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지나서 수강인원이 확정된 후라야 분반이 가능하므로 수강생들의 타과목 수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개강 후 분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강사의 경우는 분반제도의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학교측에서 분반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분반제도를 잘 알고 있는 전임교수의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표작성의 번거로움과 담당시수의 과부담 때문에 150~200여명에 대한 통합강의를 감내하는 경우가 흔하다. 수강생 수가 적은 경우에도 일반강의실에서의 색채 강의는 시청각교육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까닭은 시청각 교육기재 준비의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시청각실을 색채강의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타 강의 또는 학교행사의 필요에 따라 시청각실을 내어주고 강의실을 옮겨야 하는 불편이 종종 있기 때문에 시청각실을 고정강의실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강의자의 반응도 적지 않다.

일광 조도가 낮은 날씨일 때에는 강의실의 천정등을 켜고 강의를 해야 하므로 주광색 형광램프가 아닌 일반 형광등 일색인 강의실에서는 연색문제가 발생하여 색도표를 관찰해야 하는 색채수

5) Johannes Itten <The Art of Color> VNR(1971) 12쪽

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 야간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조차도 색채강의실의 조명에 별다른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 — 무신경한 실내 조명의 문제점은 야간에 개설되어 있는 미술·디자인계 대학원의 강의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2-2. 교재 및 교육도구의 문제

빛(광원의 빛, 색채조명의 빛)과 관련된 색채강의에 필요한 시설기재를 갖춘 대학은 전국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다.

광원의 빛에 따른 물체색의 변화(연색성, 조건동색)와 조도변화에 따른 물체색의 변화(푸르키니에현상) 및 3원색광의 혼합(가산혼합), 또는 색채조명에 따른 물체색 및 그림자색의 변화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실험도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슬라이드 또는 인쇄물을 통하여 형식적인 강의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계에서 점차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측색용 컴퓨터 시스템⁶⁾을 갖춘 대학은 아직 없으며, 고가의 장비가 아닌 시각측색(비색검사)에서 필요한 표준광원기⁷⁾를 보유한 대학도 전혀 없다.

이러한 기재들은 교육부의 시설기준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므로 기준령에 명시된 시설을 갖추는데 급급한 대학들의 재정사정에서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는 하겠으나, 이는 전문성 있는 색채교육 책임교수(전임교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조차 인식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지 못한 결과이다.

심지어는 색채체계와 배색교육에서 필수도구가 되는 '색입체'나 '표준색표집'⁸⁾을 보유한 대학이 10%정도에 불과한 본고 필자의 조사결과로 보면 대개의 대학 색채강의의 환경은 전근대적 상황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된다.

표준색표집은 디자인계열의 학교에서는 도서관용 뿐만 아니라 학과실에도 항상 비치해 두어 디자인 전공실기 수업에서도 비색검사 및 시각측색용으로 활용해야 할 도구이며, 'Munsell Book of Color'와 'JIS표준색표'는 고가의 수입품이지만 '한국표준색표집'(공업진흥청 인준)은 1991년 말부터 저가로 보급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소수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각혼색 실험용 '회전혼색반'을 갖춘 대학은 2개교 뿐이었고, '3원색광 투사기'를 보유한 대학은 전무하다. 이런 구조가 간단한 기초적 도구는 열설있는 색채 교육담당자라면 손수 제작할 수도

6) 측색용 컴퓨터 시스템은 ICS-TEXICON사(영국)의 "COLOUR MANAGEMENT SYSTEM"와 Munsell Color-Macbeth사(미국)의 "COLOR MEASUREMENT SYSTEM" 및 "COLOR FORMULATION SYSTEM"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 장비들은 모두 PC화된 기종들이다. 시료색의 먼셀기호와 CIE데이터(시각측색으로 얻어낼 수 없는 정확한 범위까지)를 표준광C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장비는 국내의 몇몇 염료 및 도료회사와 한국색채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다.

있을 것이지만 강의에 활용했다는 응답을 한 강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위에 말한 여러가지 색채연구 및 교육용 도구들이 각 대학 부설 산업디자인연구소(4개처 조사)에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간행되어 보급되고 있는 상당수의 색채학 교재에도 문제점이 있다. 해외서적을 복사한 색도판의 불량한 색재현도 문제이지만 편저자 또는 번역자의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오역 또는 내용기술의 착오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 인쇄과정에서 나타난 오자, 탈자의 문제가 아니다.)

색채학습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색지'⁹⁾의 색재현 오차의 문제는 심각하다. 표준의 무채색 기본명도와 표준의 기본색상과 채도에서도 오차가 심하며, 새로 발행될 때마다 오차가 달라지고 있어서 색채학습에 혼란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종합하여 말하면 우리나라의 색채 교육환경은 아직도 전근대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2-3. 수강생과 교수의 문제 분석

2-3-1. 수강생의 문제

색채과목(이론)의 수강생의 문제는 교과과정 및 체도의 문제에서

7) 표준광원기는 공업규격으로 정한 표준광C 또는 D(직사광이 아닌 평균의 햇빛의 질을 지닌 인공광), 표준광 A(백열등의 빛) 및 형광등의 빛을 내는 기구로서 상자형(Booth)과 천정형이 있다. 이것은 산업계에서 색채의 관측(비색검사, 시각측색, 조건동색의 관측)에 필수장비로 사용되는 것이며, 학교에서는 날씨가 쾌청하지 못한 날과 야간의 색채수업에서도 갖추어야 할 장비이다. 디자인물의 색채체계과정에서도 사용될 필요가 있으나 '95년 현재 전국대학에 이 기구를 확보하고 있는 대학은 한 곳도 없다. Munsell Color-Macbeth사(미국)의 "Spectralight Viewing Booth", "Proofite Viewing System"과 ICS(Instrumental Colour Systems)사(영국)의 "MULTILIGHT-The Colour Assessment Lighting Cabinet"가 수입되고 있다.

8) "한국표준색표집"은 1991년말에 KBS한국색채연구소(현재, 사단법인 한국색채연구소)에서 KBS문화사업단을 통해 발행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 색표집은 한국공업규격으로 채택된 먼셀색채체계에 의한 것이며, 공업진흥청이 표준으로 승인해준 광택판 색표집이다. 초판은 1990년에 발행되었으나 색표에 제작기술적 결함이 있어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고 1991년에 개정판을 발행했으므로 개정판이 결국은 초판인셈이다. 최초의 한국표준색표집은 1988년 말에 "표준색모음"(광택판)이라는 명칭으로 한국표준연구소가 제작하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발행했으나, 200권을 발행하여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회원 기업체에만 보급하였을 뿐 속간되지를 못하였다. 미국 Munsell Color-Macbeth사가 발행한 "Munsell Book of Color"는 광택판, 무광택판의 세트가 되어 있다. 일본색채연구소가 제작(일본규격협회발행)한 "JIS(일본공업규격) 표준색표"(광택판)도 KS와 더불어 먼셀색채체계로 되어 있다.

9) 국내생산의 색채학 실습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색지는 135×180코기의 77색으로 된 "종이나라"(한국색채사 발행)가 대표적인 것이다. 몇 되지 않는 시중보급 색지 중에서는 그중 나은 이 색지도 표준색 명도스케일용 무채색과 표준색 20색상환용 색지의 색재현에 오차가 심하며, 다시 발행할 때마다 오차가 다르다는 심각성을 지닌다. 수입보급되고 있는 일본산 색지로는 일본색채연구소 배색체계(PCCS)에 준거한 "배색카드 129b"(일본색채연구소 감수, 일본색채연구소주식회사 발행)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 색지의 뒷면에는 영자로 된 톤기호와 색명(일본문자로 된)이 적혀 있어서 호감을 주지만 KS나 JIS로 채택한 먼셀색채체계와는 전혀다른 일본에서 배색연구용으로만 쓰이는 색채체계인 PCCS(일본색채연구소배색체계)에 맞는 색지이므로 이 체계를 별도로 익히지 않는 한 색의 표준에 대한 혼란을 막을 수가 없다.

비롯된다.

「색채학」과 「색채관리」를 병설한 대학에서조차 이 과목들은 전공선택 과목이며 색채학을 색채관리의 선수과목으로 제도화하고 있지도 않다. 그 결과는 두 과목이 교과목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강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색채관리」 또는 「색채조절」은 기초색채학을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강의효율을 지닐 수 있는 심화과정의 교과목이다.

따라서 저학년에서 「색채학」(이론), 또는 「색채연습」(이론 겸 실습)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제도화하고 2학년~3학년에서 전공학과 성격에 따라 「색채관리」, 「색채조절」, 「색채계획론」 등을 개설하여 기초색채과목 수강 후 연계되는 단계적 수강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색채과목이 2학점으로 개설된 학교의 경우는 교직과목 이수자들이 3학점을 필요로 하여 개설학과를 바꾸어 중복수강하게 되므로 형식적인 수강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노골화되고 있다.

전문적 색채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중요도의 비중 인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일반 교양 과목과 다름없는 인식수준에서 수강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학과구분이 없는 통합강의 운영은 타학과 개설과목의 수강(일반선택)이라는 점에서 보면 시간표 작성의 결과에 따라서는 필요학기에 수강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학과생들의 경우도 많다.

전공선택과목이라 하더라도 H대학교 미술대학의 경우는 과목개설 해당학과 수강생과 타학과 수강생(일반선택)을 합하여 100~200여명이 동시수강을 하게 되므로 교양과목 강의실과 다름없는 분위기 속에서 수업하게 되며, 강의담당자도 심도있는 강의를 하기에 불합리한 실정이다.

또한 이론 교과목이기 때문에 색채실험, 조사 등의 내용은 수업시간외의 과제물로 처리하게 되며, 100명 이상의 과제물을 담당교수(시간강사 또는 전공실기 강의부담을 지닌 교수)가 일일이 확인 교정해 주기란 매우 벅찬 일이어서 학생·교수 모두가 강의라기 보다는 강연 성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까지도 있다.

색채이론과목 수업에서 수업시간외의 과제로 색채실험 과제(실기물)를 자율과제로 부여했을 때 이를 시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시하며 평가해주시기를 위하여 강의자를 찾아오는 학생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과제를 수행한 학생만 정답을 쓸 수 있는 필기시험을 수년간 부과해 본 본고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95~98%의 수강생이 오답을 내었고, 이런 사례에서 이론만으로 강의되는 색채교과목의 성과를 짐작해볼 수가 있는 것이며, 수강생들의 수강태도와 수업성취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답자들(3학년)의 한결같은 변명은 “전공실기 과제물처리에도

항상 바쁘기 때문에 이론과목에서 부여해준 실습은 해볼 겨를이 없다”는 말이다. 색채실험 과제물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그 점검결과를 성적배점 80%로 한다는 공고를 했을 때도 성실한 실험결과물을 제출한 수강생은 40%를 넘지 못했고 나머지 수강생들은 제출 마감일에 임박해서 과제의 목표도 잊은 채 졸속으로 만들어 제출하였다. 이러한 강제적 수법으로 색채실기 과제물을 2~3년간 지속적으로 부여해 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은 수강신청자의 급속한 감소(선택과목이므로)였던 경험을 필자는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색채이론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들의 인식수준을 충분히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2-3-2. 담당교수의 문제

색채교과목의 학점 축소현상과 색채교육 환경의 열악한 상태는 색채교육 전담교수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대개 색채교육 담당자는 회화전공의 화가들이어서 디자인영역에서만 필요한 내용은 강의 범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디자이너가 담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임교수가 아닌 초임 시간강사로 몇학기만에 대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임교수이건 시간강사이건 한 교수가 10년이상 색채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기초실기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런 현상은 전공실기 담당교수의 확보가 미흡했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전임교수는 전공실기 담당시간수의 과다로 색채과목을 계속 담당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색채교육과목은 순수미술, 디자인, 공예의 모든 학과에 두루 필요한 과목이어서 각 학과의 특성에 맞는 색채과목을 각각 개설한 다해도 전공실기교수가 전담하기에는 힘겨울 수밖에 없고, 전공실기교수의 확보가 미흡하다보면 특정학과에서 색채교육 전담교수를 확보하여 타 학과의 색채교육까지 관장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한 실정을 '96년 현재 전국 대학에서 미술·디자인계 학과를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홍익대학교의 사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다.

홍익대학교의 미술대학에는 11개학과(입학정원 480명), 조형대학에는 2개학과(입학정원 120명)가 설치되어 있어 통산 13개 학과(입학정원 600명)의 미술·디자인·공예계열학과가 있으며, 대학원·교육대학원·산업미술대학원(주간, 야간)·산업대학원(야간)·환경대학원(야간)에도 색채연구 과목이 개설되어있으므로 색채교육 전담교수가 확보되어야 할 절실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색채교육 전담교수를 임용할 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못하다.

색채교육 전담교수의 부재는 색채교육환경(교육시설, 교보재의

확보)을 담보상태로 만들고, 교과과정에서도 교육비중을 높일 수 없으며, 도서관 입고 색채전문서적의 확보(시간강사에게는 도서추천권이 없다)조차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색채과목은 미술전공자라면 누구나 강의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교수사회의 안일한 타성(전문성 무시의 성향)이 색채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교수사회조차도 색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황폐화되어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색채교육 전담교수제도의 운용은 학과차원에서는 논의조차 불가능하며, 대학(여러 학과전체)에서 논의되어야 할 교육정책적 사안인 셈이다.

대체로 대학의 전공실기 담당교수의 확보가 미흡한 현실점에서 보면 색채교육 전담교수를 둔다는 것은 요원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색채교육의 부실이 전공실기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교수가 점점 많아진다면 그것은 요원한 일도 아닐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전공실기 교수들은 기초 및 전공과정의 여러 가지 실기실습 과목을 통하여 색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는 데에 있다. 본고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50명 중 45명의 실기교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48명의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색채전공자가 없다고 생각(열성적 독학자에 대한 전문성의 무시)하고 있다.

3. 색채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안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켜 색채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피교육자들에 대하여 색채언어 구사의 재능과 형태언어 구사의 재능을 조형예술 교육의 기초과정에서부터 대등한 재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전공실기 교육담당자들의 인식전환이 우선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안일한 사고, 즉 조형예술의 기초교육 과정인 조형실습과 상급과정인 전공실기 교육에서도 색채는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색채이론 한강좌로서 족하다는 안일하고도 타성적인 인식 속에서는 전혀 개선책이 나올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야 색채교육 전담교수(또는 색채교육 책임교수)제도의 도입도 가능할 수 있다. 색채교육 전담교수가 확보된다면 그를 통하여 교과과정, 교육방법과 교육범위, 교육시설과 도구 및 교재, 전문도서 등의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

한다.

3-1. 색채교육 전담교수의 확보

색채교육 전담교수(또는 책임교수)제도를 도입하자는 말은 교육내용의 전문성을 확립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색채교육은 조형예술 교육의 기초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전공실기 교육의 수준 향상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교양과목이나 전공실기의 전담교수가 있는 바와 같이 색채과목 전담교수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색채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과들의 통산 입학정원이 90명(실기수업 3개반 편성인원)이상이 되는 미술·디자인계 대학에서는 학교가 정하고 있는 교수의 주당 책임시간수를 색채과목 담당반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색채교육 전담교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물론 학과 소속에 구애됨이 없이 대학 내 모든 학과(대학원 포함)의 색채교과목을 전담하는 교수를 지칭하는 것이다.

입학정원이 60명(실기수업 2개반 편성)미만인 경우는 책임시수 부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색채가 중요요소로 관계되는 기타 교과목과 함께 담당함으로써 책임시수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색채 교육환경의 개선과 색채 교과과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시간강사에게 색채과목의 담당을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간강사는 학교내의 교육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교과과정개정에 참여하지 못하며, 도서관에 입고될 도서 추천권도 없는 등)이다.

디자인 계열학과와 순수미술 계열학과가 공존하는 대학에서 한 사람의 색채교육 전담교수를 둘 경우에는 디자인전공자로서 색채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이 화가 또는 조각가보다도 이상적이다. 그 까닭은 디자인에서의 색채는 순수미술에서처럼 미학적 연구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매우 광범위한 내용(산업기술적 내용, 마케팅적 내용 — 조사·계획·전달·시색·판매에 관련된 디자인 실무적 내용, 소비자의 문제, 색채기능 및 경제성의 문제, 환경적 문제 등)의 연구에도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되므로 디자이너 출신이 순수미술인이나 조형이론 전문가보다 색채교육 전담교수로서 이상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미술 작가나 조형이론 전문가가 디자인계열 학과에서 필수로 강의해야 할 「색채관리」와 「색채조절」을 통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3-2. 색채교육과정의 강화

색채교육과정의 강화는 색채교육내용의 전공별 전문성과 교육단계의 합리적 체계화를 말하는 것이다.

조형예술계 대학의 색채수업은 학문으로서의 이론탐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색채활용의 능력향상에 목적이 있으므로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2-1. 항목에서 분석된 문제들의 해결방법이 여기에서 논의될 사항들이다.

3-2-1. 수업량의 확충과 실험 우선의 색채교육

이미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미술·디자인계 대학들의 색채교육은 형태중심의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절대적 수업량이 부족하다.

뛰어난 기초조형 교육자인 동시에 색채교육자였던 요하네스 이텐은 색채의 기초교육에서 실험에 의한 체계적 교육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를 결부시켜 시행하는 연습에는 위험이 뒤따른다고 경고한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흔히 색면(color areas)과 색의 신장(tensions)에 대한 연구 보다는 형(shapes)에 대한 실험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습은 대개 윤곽을 그리는 습관을 기르게 되는 것인바 색채디자인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충고한다.¹⁰⁾

따라서 이텐의 기초 교육에서는 형태를 최대한 생략한 바둑판무늬의 배색표현으로 목적에 합당한 색채효과를 얻은 후에 그 효과에 적합한 형을 적용시켜 상호보완적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순서를 밟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형과 색채를 결부시켜 진행되고 있는 평면조형 등의 기초실기 수업에서 색채실험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무모하기조차 한 기대가 된다.

배색의 조건, 조명의 상태에 따라서도 수없이 변화하는 색채효과를 이론으로 알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기초조형의 교육에서 색채수업량의 확충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소묘(또는 드로잉)시간량에 상응하는 색채실기(색채연습)시간(두학기, 주당 4시간, 총 4학점)의 배정이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하는대로의 색채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체험적 기본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습 다음에 이론이 뒤따르는 색채의 학습은 경험을 통함으로써 더욱 오래 지속하여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 창조성 개발의 길을 열어준다. 경험에서 비롯된 통찰의 인식과 비교에 의한 평가를 추진시켜 쌓아 올리는 방식의 기초학습은 발달과 개선, 다시 말하

여 능력의 성장을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성장은 비단 기쁨을 느끼는 경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활동을 촉진시키며, 탐구를 계속하게 하는 의식적인 활동욕구에서 생산성과 창조적인 조형욕구로 이행하게 만든다.¹¹⁾

국내의 조형예술계 대학에서 색채 교육과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표2>의 비교표와 <표3>의 선진국 대학들의 색채 전문과목의 개설과 학점수에서 충분히 발견된다.

<표2>에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미국의 RISD를 모델로 비교한 까닭은 두 학교의 학과구성에서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며, 국내 대학가운데서 홍대가 가장 많은 색채 전문과목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의 두 대학에서 특별히 대조되는 내용은 홍대의 색채과목이 대체로 2학점의 선택과목인데 반하여 RISD의 경우는 모두 3학점의 필수과목이라는 점이다.

<표2> 한국과 미국의 미술대학 색채과목 개설 비교표

1995~1996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학과	학년기	학과목명	학과	학년기	학과목명
동양화	3 2(F)2	색채학	Painting	2 S	3 Color Theory
섬유미술	2 2(F)2	섬유색채계획	Textiles	3 F	3 Color
시각디자인	1 1(S)1	색채론*	Graphic Design	2 F 5 (BGD)	3 Color and * Appliscation
산업디자인	2 1(S)2	색채관리	Interior Design	3 S	3 Color Theory
예술	2 1(S)2	색채학	Photography	2 S 3 F	3 Color 또는 선택과목

* (전공필수) 외는 전공선택과목

· 일반선택 수강 가능학과:
금속공예 / 도예 / 목공예 / 조각 / 회화(서양화) / 판화

* BGD(5년)과정의 선택과목 외는 필수
· 선택수강가능학과:
Architecture / Art Education / Furniture Design / Industrial Design / Landscape Architecture / Sculpture

S = 봄학기 F = 가을학기

지명도가 높은 몇몇 외국의 대학들 가운데서 색채교육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섬유디자인학과의 색채과목 개설현황을 소개하면 <표3>과 같다.

사회문화적 환경과 미술교육 환경이 한국보다 뛰어난 선진국 대학들의 색채교육이 오히려 국내 대학들에서 보다도 훨씬 강화되어 있음을 <표2>와 <표3>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조형예술 교육에서 색채의 교육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교내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색채 교육의

10) Johannes Itten, 앞에 적은 책 36·37쪽

11) Josef Albers, 서재행 역 <실험에 의한 색채구성> 일지사(1978) 123, 124쪽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선진국 대학에서 보다는 더 큰 비중으로 색채교육과정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국제화 지향의 조형예술 교육의 목표에 접근도 못하고 색채취급의 재능양성 방법에서 영원히 후진성을 탈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표3〉 선진국대학 섬유디자인학과와 색채교과목¹²⁾

1994-1995현재

국가	대학교명	과목명	학 년	학 점	비고
미국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색채원리(Color Fundamentals)	1	2	
프랑스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Decoratifs	색채연습	1	3	총계: 10학점 4학년: 3주과정
		색채학	2	3	
		색채경향(color trend)	3	2	
독일	Hochschule der Künste Berlin	색채	1	6	총계: 18학점
		색채	2	12	
일본	多摩美術大學	색채론A	3	4	총계: 8학점
		색채론B	4	4	

3-2-2. 수업단계의 합리화

〈표3〉에서 볼 때 프랑스·국립장식미술학교(섬유디자인전공)가 색채교육과정의 단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상적이라고 하는 까닭은 요하네스 이텐이나 요세프 알베르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저학년에서 우선 실험실습으로 색채수업을 하고 다음 학년에서 이론적 뒷받침을 해주며 고학년에서 실제 디자인 전공수업에 직접 필요한 색채탐구 — 예를 들면 섬유·의상 디자인의 실무영역에서는 시장의 색채경향(Color trend)의 파악이 대단히 중요하다. — 를 할 수 있는 단계적 색채 수업과정으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초과정 → 발전과정 → 심화과정의 합리적인 순서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속적이며 단계적인 연계교육의 체제는 독일·베를린예술대학과 일본·다미미술대학의 교과목 설치와 학점 배당량에서도 짐작해 낼 수가 있다. 그리고 10학점 내외의 색채과목 개설은 반드시 실습과 이론이 병행되는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는 점도 짐작할 수 있다.

또 미국·RISD의 경우를 보아도 실습과 이론교육이 병행되는 과목('Color')은 첫학기(Fall)에, 색채이론('Color Theory')은 다음학기(Spring)에 개설되어 있어서 단계적 수강을 배려해 놓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 〈표2〉참조

12) 한상혜, '한국섬유디자인교육에 대한 고찰'. 〈디자인학연구. Vol. 13〉 한국디자인학회(1996). 76, 77쪽

모든 전공과목 수업이 기초과정, 발전과정, 심화과정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교육의 상식이다. 따라서 색채교육을 위한 교과목의 개설에 있어서도 그러한 연속적이고도 합리적인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다.

3-3. 교육방법의 개선과 바람직한 수업범위

이미 '대학색채교육의 현황분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의 색채교육은 이론교육 중심으로 되어있고 형식적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교육방법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학술적 이론으로만 강의되는 색채수업은 피상적이며 까다롭고 딱딱하여 어렵다는 것이 수강생들(2, 3학년)의 반응이며, 색채에 관한 지식은 늘었으나 색채취급의 재능향상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한학기동안의 색채이론 수강결과에 대한 수업소감을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니고 있다. 색채학(론)강의를 수강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이다.

분명히 현재와 같은 이론 중심의 색채교육은 형태취급의 능력배양을 위한 소묘, 제도 등의 실기교육과 대등한 방법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기초과정의 색채교육에서는 순수미술 전공이건 디자인 전공이건 공통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할 교육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으나 디자인계열의 심화과정 색채교육에 있어서는 세분된 전공영역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지 않으면 교육의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두가지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여 색채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룬다.

3-3-1. 교육방법의 개선

기초과정의 색채 교육방법에서는 학술적 이론을 앞세우기보다는 실험실습으로 색채의 상호작용(interaction of color — color effect)에 대한 체험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색채탐구의 활동욕구를 유도하여 생산성과 창조적 욕구로 이행된 조형욕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색채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색채를 통한 조형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색채의 객관적 원리과학을 위한 색채과학(특히 생리학적, 심리학적 측면)의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직관에 의한 색채미학적 처리능력도 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내용이 실험실습교육으로 습득된 이후에 심화과정의 수업에서는 이론강의(또는 세미나식 강의)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수강생들은 관련내용의 색채실험 실습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색채교육의 기초과정에서 부터 심화과정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활용되어야 할 학습도구와 시설은 공업규격으로 채택된 '표준색표집'과 '색입체', '색명사전'¹³⁾ 및 '표준광원기', '회전혼색기', '삼원색광투사기'(조광기 — dimmer 포함), '색조명 기구세트'(각종 색 필터 및 dimmer 포함), 각종 광원(백열광원, 전기아크광원, 형광광원)이 설치된 조명캐비닛(Viewing Booth), 주광색램프의 천정등과 디자인(또는 평면조형)용 테이블이 설치된 실기실, 주광색 천정등과 시청각기재(OHP, 슬라이드 환등기, 실물환등기, VCR세트)가 설치된 시청각 교육실 따위이다. 또 측색용 컴퓨터 시스템(또는 분광광도계, 색차계)을 갖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색채 실험실습용 소모품으로서의 표준색에 맞추어 색채현이 된 각종 '색지'(명도스케일과 20색상환용 기본적 색지외에 명청색, 암청색, 탁색 등이 많을수록 좋다.)와 '표준 기본색 10색상과 흑·백·회색으로 구성된 포스터칼라'(또는 아크릴칼라)가 필요하다.

위에 열거한 실험도구와 시설을 사용하여 실제의 빛과 실제의 색채를 직접 보고, 만들며, 느끼고, 파악할 수 있는 실제적 체험의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배색연습에서는 정확한 색채의 표준에 의한 기준척도를 익힌 후 배색되는 색채들의 색차를 생각하며 계획적인 배색으로 의도된 색채표현 효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형태를 최대한 배제한 연습으로부터 형태효과를 색채표현 효과에 결합시키는 연습의 순서로 발전시키는 실습의 단계적 훈련(이텐의 색채훈련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3-3-2. 바람직한 수업범위

다시 말하거나와 색채의 학습은 순수미술 전공인가, 디자인 전공인가에 따라서 그 수업내용의 범위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순수미술 전공에서는 색채미학적 탐구에 목표를 둔 색채연구가 필요한 것이지만 실용예술인 디자인 전공에서는 색채미학의 탐구는 연구범위의 일부분일 뿐, 색채조사 및 계획, 계획된 색채의 제조(시색), 공급(판매)의 전과정에 필요한 사회문화적 문제, 산업기술적 문제, 사용자(소비자)와 시장의 문제에 직결되는 색채연구의

범위가 추가되는 것이다.

또한 디자인영역의 세분된 전공구분에 따라서도 색채학습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생산적 성격의 디자인물을 다루는 시각전달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의 영역, 환경적 성격의 디자인물을 다루는 실내디자인과 건축·도시디자인의 영역이 모두 같은 색채학습 범위안에 획일화 될 수 없는 노릇이다.

다음에 서술되는 내용의 「기초과정」과 「발전 및 심화과정」은 전공구분 없이 수업되어야 할 범위를, 「심화과정」은 디자인 계열에서 추가하여 수업되어야 할 범위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통상 수업학기는 세학기, 총개설학점은 6~8학점(순수미술 계열은 두학기, 4학점)을 최소 한계기준으로 한다.

● 기초과정(순수미술 및 디자인계열)

기초과정은 색채지각력의 훈련이 용이하고 활동욕이 강한 저학년(1~2학년) 첫학기에 색채연습(실험)중심으로 수업할 내용이다. 수강생의 전공구분에 관계 없는 공통 수업내용으로 구성되며, 실습시간은 최소한 1주당 4시간 배정이 이상적이다.

- 색채에 대한 지각력 배양 훈련 — 특히 색채의 표준과 색차에 대한 지각력 훈련
- 색채의 지각적 특성 파악 실험 — 시인성, 유목성, 항상성 등
- 색채의 감각적 특성 파악 실험 — 한/난, 경/중, 경/연, 원/근, 흥분/침정, 건/습, 맛, 향기, 계절감, 투명감, 공간감 등
- 형과 색의 관련, 형과 각도의 관련 탐구 실험
- 잔상의 실험 — 동시대비의 잔상, 반대대비 잔상
- 색료의 혼합(감산혼색) 연습 — 3원색의 혼합, 보색 및 분열보색의 혼합, 유사색의 혼합, 색료의 피복력 실험, 베버-페흐너의 법칙 실험
- 색광의 혼합(가산혼색) 연습 및 조명색과 광원빛의 색의 연색성 실험 — 조건등색 포함
- 조도와 시각각의 변화 실험 — 명소시, 암소시, 박명시, 푸르키니에 현상 등
- 시각혼색 실험 — 회전혼색, 병치혼색
- 색채의 융합효과, 동화효과, 투명효과, 공간효과 실험
- 기초적 배색훈련 — 각종 대비효과의 실험, 조화색 배색 연습
- 중요 색채체계의 이해 — 먼셀체계, 오스트발트체계, 기타
- 관용색명, 계통색명의 이해 — 계통색명 부여방법의 연습

13) 우리나라의 「색명대사전」(권장 지음)은 300색의 무광택 색표에 우리말 생활색명(한자명 포함)과 영어분류색명(계통색명) 및 관용색명이 표기되어 있고, 1964년에 한국색채연구소(권장씨에 의해 사립으로 1950년 말에 설립, 약 8년간 존속)가 발행하였으나 초판으로 절판되었고, 그 이후에 발행된 것은 없다.

미국의 색명사전인 「ISCC-NBS Color Name Charts Illustrated with Centroid Colors」는 1965년에 NBS(미국표준국)가 발행했으며, 이것이 영어색명(계통색명) 지시방법의 세계적 표본이 되어왔다.

일본의 「색명사전」은 (재)일본색채연구소 편으로 1973년에 일본색연사업주식회사가 발행했으며 380색의 광택색표에 JIS계통색명(영어·일어)이 표기되고, 별도로 관용색명과 이에 대한 해설이 첨부되어 있다.

- 표색방법의 이해 — 삼속성에 의한 표색(KS기호), 기타
- 비색검사, 시각측색, KS 표색기호 부여방법의 연습
- 자연물의 색채조사방법 및 색표화 연습
- 색각이상자의 색시각 경향조사 및 색표화 연습

● 발전 및 심화 과정 (순수미술 및 디자인 계열)

이 과정은 기초과정 수업 이후인 저학년(1~2학년) 두번째 학기의 색채연습(실험)이며, 전공구분없이 숙련시켜야 할 공통 기초내용을 다루되, 색채의 미학적 탐구에 목표를 둔다.

이 과정도 수업시간은 최소한 1주당 4시간 배당이 필요하다.

- 자연계의 색채인상 탐구실습 (형태삭제 색면구성→자유구성)
- 명화의 배색수법 분석 및 실습 (형태삭제 색면비례구성)
- 무채색의 장조(Major), 단조(Minor) 구성법 기초 실습
(구성법 도표→줄무늬구성→바둑판무늬구성)
- 장조(높은장조, 중간장조, 낮은장조)에 의한 주제표현 연습
(줄무늬구성→바둑판무늬구성→형태적용 자유구성)
- 단조(높은·중간·낮은·중간높은·중간낮은 단조)에 의한 주제표현 연습
(줄무늬구성→바둑판무늬구성→형태적용 자유구성)
- 유채색의 명암대비에 의한 주제표현 연습 — 모노크롬 포함
(줄무늬구성→바둑판무늬구성→형태적용 자유구성)
- 변적대비에 의한 주제표현 연습 — 조화된 변적 실험 포함
(줄무늬구성→바둑판무늬구성→형태적용 자유구성)
- 색상대비에 의한 주제표현 연습 — 무채색 추가 사용 포함
(줄무늬구성→바둑판무늬구성→형태적용 자유구성)
- 한난대비에 의한 주제표현 연습 — 무채색 추가 사용 포함
(줄무늬구성→바둑판무늬구성→형태적용 자유구성)
- 보색대비에 의한 주제표현 연습 — 분열보색 사용 포함
(줄무늬구성→바둑판무늬구성→형태적용 자유구성)
- 동시대비에 의한 주제표현 연습 — 동시효과의 강조법 및 방지법 실험 포함
(줄무늬구성→바둑판무늬구성→형태적용 자유구성)
- 채도대비에 의한 주제표현 연습 — 채도조정의 각 방법 실험 포함
(줄무늬구성→바둑판무늬구성→형태적용 자유구성)
- 색채조화의 기본원리탐구 (2색·3색·4색·6색조화) 및 연습
- 각종 조화론의 비교분석 — 조화론의 가치와 한계 평가 포함
(세미나식 발표·토의수업)
- 전통색채의 조화색 연구 — 색표화 작업 실습

● 심화과정(디자인계열)

디자인계열의 색채교육 심화과정은 시각디자인(인쇄매체·영상매체디자인), 제품디자인(공업·공예·의상·섬유디자인), 환경디자인(실내·건축·도시디자인) 등 디자인 전공구분에 따라서 디자인의 대상과 시색의 공정이 전혀 다르므로 전공별 강의(시각·제품디자인 전공에게는 “색채관리론”, 환경디자인 전공에게는 “색채조절론”)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색채관리”와 “색채조절”의 개념이 혼동되어 있으므로(사전의 용어 해설에서조차도) 두가지의 개념 비교 강의는 모두에게 필요하다.

색채관리(Color Control)는 색채계획(Color Planning, Color Scheme)정도의 단순 개념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러나 색채관리의 관리개념은 품질관리(Quality Control)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1950년대 중반기부터 일본에서 급속히 발달된 품질관리의 과학기술적 방법이 색채에 활용된 것이다. (오늘날의 품질관리는 계획된 좋은 품질을 계속 유지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통계적, 과학적 방법까지 동원하여 새로운 품질을 창조·공급한다는 적극개념을 지녔다.)

현대의 상품(제품)은 기능적 품질 보다도 기능외 품질(색채와 스타일에 의한 심리적 만족감)에 의하여 수요자(고객)에게 선택되는 색채상품적 특질을 지녔다. 따라서 품질관리 부서에서 색채문제까지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기업내에 색채관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서구사회에서는 아직 이러한 색채관리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색채관리는 상품으로서의 제품(광고도 상품으로 간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색채선정을 위한 정보의 조사와 분석·합리적 계획에 의한 색채설계·과학적 공정관리에 의한 시색(제조)·효과적인 판매(서비스)에 걸친 총화적 기업생활 기술의 한가지라고 말하게 된다. 한마디로 제품색채를 위한 통합적인 활용방법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제품의 새로운 적합색을 계획하고 색채설계를 주관하게 되는 디자이너는 제조공정에서 옳게 시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해야하며, 시장과 고객에 대한 색채정보 조사요원의 훈련방법의 제시, 조사된 색채정보의 분석능력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시각·제품디자인전공생에 대한 색채관리 교육은 필수적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색채조절(Color Contioning)은 색채가 시각조건을 통하여 인간의 생체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활환경(특히 공공장소와 노동환경)과 생활기물의 색채에 활용하는 응용과학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색채조절에는 조명공학적인 내용이 포함되며, 색채에 대한 개인적 기호(주관적 취향)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문제에 연구의 초점을 가하게 된다.

색채조절은 1920년대 중반기부터 외과의사들의 시각피로방지를 목적으로 병원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여 1940년대에는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환경과 환경요소로 공존하는 기물에 대한 색채조절 결과는 쾌적감 유발, 긴장과 피로의 감소, 판단력과 작업효율의 증진, 사고 및 재해의 예방, 시설·기재의 유지 및 관리의 수준향상의 효과를 얻게 된다.

색채사용의 기능과학적 효과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객관성있는 미학적, 정서적 감각의 효과를 함께 추구해야 하며, 각 국가마다 공업규격으로 채택하고 있는 “안전색채 및 안전색광 사용 통칙”은 공공이익을 위한 법제화된 색채조절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과 관련된 디자인 전 공영역에서는 색채조절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 심화과정은 전공실기 수업에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공실기 수업에서 색채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무적 역량의 양성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이 과정의 수업을 마친 후 첫 학기에는 전공실기의 매 프로젝트마다 색채 담당교수가 전공실기 담당교수와 협동하여 지도할 수 있는 강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전공실기 수업의 심화를 위한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앞서 다룬 기초과정, 발전 및 심화과정의 수업을 마친 다음학기 초 연속하여 개설한다. 수업시간은 한학기 1주당 3시간 또는 두학기 1주당 2시간의 이론강의로 설정하되, 필요한 연구과제를 팀 별로 부여하여 그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실시하는 세미나형식의 발표수업을 포함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 시각디자인전공의 심화과정 …… 인쇄와 영상·사진에 관련된 “색채관리론”을 강의하되, 디자이너가 의도한 색채가 나오지 않았을 때 색재현 기술자에게 구체적 내용으로 교정하여 지시할 수 있는 지식을 지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특히 인쇄매체 디자인전공에서 필요한 인쇄를 통한 색재현(시색)의 공정관리와 영상매체 디자인전공에서 필요한 영상 색재현의 공정관리(조명포함)를 모두 포함시킨다.
- 제품디자인전공의 심화과정 …… “색채관리론”의 강의에 “색채조절개론”을 포함시킨다. 제품 색채계획에서는 소비

자 시장의 칼라 트렌드(색채경향)의 조사 분석이 중요하므로 이를 강의 내용에 포함시키며, 제품색은 환경색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므로 환경색과의 조화와 기능적 문제를 함께 다룬다. 색채취급의 과학화를 위하여 시각측색 및 비색검사의 방법을 실습으로 훈련시켜 KS기호(번셀기호)로 표색하는 숙련능력을 지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색채설계(지정색과 한계색표의 제시, 시색을 위한 색채사양서 작성 등)에 활용하는 실습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측색용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법을 체험시키는 것이 좋다.

- 환경디자인전공의 심화과정 …… “색채조절론”을 중심으로 강의하되 실내·건축·도시의 재료(천연재 및 인공재)에 따른 색채조화의 미학적 배색문제도 포함시킨다. 환경색채의 조사와 색표화작업은 물체의 경우보다 까다롭다. 거기에는 거시적, 미시적 관찰의 능력이 모두 필요하며, 색채설계에서 KS기호로 표색하는 방법, 지정색과 한계색 건본의 제시 방법, 시색을 위한 색채사양서 작성법 등을 실제로 훈련시켜야 한다.

대체로 실내디자인 전공에서는 색채강의가 개설되어 있으나 건축-또는 도시계획 전공에서는 색채강의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타 디자인계열의 색채강의를 선택 수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환경디자인 전공에서는 공업규격(국제적규격)으로 정해져 있는 “안전색채와 안전색광의 사용통칙”을 강의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4. 결론

본고는 국내 4년제 미술·디자인계대학에서의 색채교육현황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점을 찾아보고 색채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4년제의 미술·디자인계 대학 색채교육 환경 및 교과과정의 조사와 색채교육 담당자들과의 면담 및 수강생들의 반응 조사결과를 분석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조형예술 교육에 있어서 색채교육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부재의 경향이 교수·학생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 ② 현행 교과과정은 조형예술의 기초교육과정에서부터 형태언어

교육과목에 대단히 편중(교과목 개설 수, 학점 및 수업시간 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색채 교과목은 이론과목만으로 개설되어 있어서 형태취급의 재능 양성에 비하여 색채취급의 재능양성에서는 균형잡힌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는 비합리적 교과과정으로 되어있다.

- ③ 색채교육 담당자가 초임 강의자와 교체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교육의 심도와 교육내용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 ④ 색채 교육환경(강의실, 교육도구, 교보재)이 매우 열악하여 피상적이며 초보적인 색채이론 강의로 끝나는 경향이어서, 대개 교양과목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⑤ 전공영역 구분에 따른 적합한 색채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서 전공실기 교육의 심화교육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 ⑥ 선진국의 대학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색채교과목 개설과 교육시간의 배정이 되어있지 못하다.

그러하므로 대학의 조형예술 교육에서 색채교육을 선진국 대학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① 이론교육만으로는 색채언어 취급의 재능양성이 불가능하며, 형태교육과 평형을 이루는 실험실습 수업이 필요하므로 기초과정의 색채교과목을 색채와 빛에 대한 체험적 실험실습 교과목으로 개편한다.
- ② 학과차원이 아닌 대학차원에서 색채교육을 진담하는 전문성있는 전임교수를 확보하여 수시로 교체되는 시간강사에 의존된 교육의 폐단을 막도록 한다.
그로하여금 전공별 교육프로그램을 작성 시행시키며, 도서관에 입고될 전문도서와 교재의 확보, 교육도구와 시설의 확보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에서 지원한다.
- ③ 국내의 색채교육의 전통적 여건과 사회문화적 여건이 선진국보다 열악하므로 색채교육과정을 선진국 대학에서 보다도 강화하되, 전공통합강의(30~40명 단위의 분반)의 「기초과정」과 「발전 및 심화과정」을 연속적으로 개설하여 색채 실험실습이 이론강의와 병행되도록 한다.
- ④ 별도로 '디자인계열'의 색채교육에서는 「심화과정」을 ③항의 과정이후 학기에 상급학년에서 개설하되, 시각디자인(인쇄매체디자인, 영상매체디자인), 제품디자인(공업디자인, 공예디자인, 의상디자인, 섬유디자인), 환경디자인(실내디자인, 건축·도시디자인)의 3개 전공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전공별 디자인 전공실기교육에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전문성있는 내용이 강의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분리교육을 시행하도록 한다.

- ⑤ 색채 교육장비의 확보와 이를 고정설치할 색채 실험실을 가능한 한 확보하여 색채교과목 강의에서 뿐만 아니라 고학년의 전공실기수업의 색채계획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시설은 대학부설 산업디자인연구소가 있다면 연구소의 장비로 검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 열거한 사항 가운데서 ①, ③, ④항은 교과과정의 개선문제로서 색채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문제가 되는 사항이며, ②항과 ⑤항은 교과과정 개선에 병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②항의 문제, 즉 전문성있는 교육담당자(전임교수)의 확보일 것이다. 색채강의를 오랫동안 담당했다고 해서 색채교육의 전문성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내 대학의 색채강의는 그동안 기초적 색채이론만을 강의내용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며, 또한 강의자의 대부분이 회화전공의 작가이거나 디자인·공예계의 작가로서 색채과목 담당을 자신이 원해서라기 보다도 타의에 의하여 임시로 맡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성있는 색채교육 담당자라고 함은 색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전공실기 교육담당을 기피하면서까지 색채연구를 해온 소명감을 지녔고 색채활용의 실무경험(특히 디자인계)이 풍부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국내 조형예술계 색채교육의 상황으로 볼 때에 순수미술 계열에서 보다도 디자인 계열에서의 색채교육은 철저히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까닭은 오늘날의 국내 산업계가 국제적 수준의 디자인발전을 위하여 큰 노력을 경주하며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선진국의 디자인 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색채교육의 수준에 접근된 합리적 교육의 질이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상품은 모두 색채상품화되고 있어서 이제는 승용차조차도 색채에 따라서 판매량이 좌우되고 있으며, 인쇄매체이전 영상매체이전 간에 색채에 따라 광고효과도 큰 격차가 벌어지고, 색채환경은 생활인의 정서에서 뿐만 아니라 성격과 정신에 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이미 실증되었다.

“색채의 진정한 연구는 인간양성을 위한 우수한 방책이기도 하다.”는 요하네스 이텐의 말과 “색채의 연구에 따라 순전히 물리적인 생리적인 현상들이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현상들과 결합될 수만 있다면 인류의 미래는 틀림 없이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고한 파버 비렌의 말을 곱씹어 보면 올바른 색채교육은 인간다운 삶의 질, 다시 말하면 행복한 인간의 세상을 만들게 된다는 뜻으

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궁극의 목적을 지닌 미술, 특히 디자인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대학의 디자인교육에서는 특별히 색채교육의 비중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또한 세계적 조형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색채교육이 필요하며 선진국 대학의 색채교육 수준을 앞지르는 색채교육의 질을 지녀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조형예술계 대학의 색채교육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본고 내용에서, 방문조사된 각 대학의 색채교육환경(교육시설 및 장비 등)은 본고 필자의 예상보다 대체로 열악하고 색채과목 담당강의자의 교체빈도가 빈번한 곳이 많아 그러한 대학의 명예에 관련되는 일이므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밝히지 않았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논거중 거명된 일부 대학당국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전공실기교수에 대한 언급도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조심스럽다. 대다수의 전공실기교수들의 색채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관심이 결국 우리나라 미술·디자인계 대학의 색채교육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본고가 우리나라 미술·디자인계 대학의 색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가 되도록 현실 개선적 논의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및 논문

- 광대웅. "디자인에 대한 색채교육과 그 한국적 현실". 『홍익미술 제3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1974)
- 권장. 『생활을 위한 색채교육』. 대황상사출판부(1965)
- 루돌프 아른하임,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홍성사(1981)
- 루이지나 D. 그란디스, 박돈서 외 공역. 『색채-원리에서 활용까지』. 도서출판 국제(1989)
- 메이틀랜드 그레이브스, 배만실 편역. 『디자인과 색채』. 이대출판부(1978)
- 박도양. 『실용 색채학』. 이우출판사(1977, 1981)
- 박돈서. 『한국현대건축 외장의 색채계획 방법론』.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86)
- 오미겐타로, 권민 역. 『조형심리』. 동국출판사(1991)
- 요하네스 이텐, 김수석 역. 『색채의 예술』. 지구문화사(1989)
- 우시우스 웅, 유관호 역. 『색채디자인의 원리』. 청우(1990)
- 윌리엄 C. 리비, 이양자 역. 『색채의 구성적 감각』. 미진사(1981)
- 윤일주. 『색채학 입문』. 민음사(1974)
- 일본컬러플래닝센터 편, 장준호 역. 『환경색채디자인』. 도서출판 국제(1991)
- 장 P. 랑크로, 김기환 역. 『랑크로의 색채디자인』. 도서출판 국제(1991)
- 조셉 알버스, 서재행 역. 『실험에 의한 색채구성』. 일지사(1978)
- 파버 비렌, 김화중 역. 『색채심리』. 동국출판사(1985)
- ———, 윤일주 역. 『먼셀·색채의 문법』. 민음사(1977)
- ———, ———. 『오스트발트·색채의 초보』. 민음사(1977)
- ———, ———. 『비렌·색채의 원리』. 민음사(1977)
- 한상혜. "한국섬유디자인교육에 관한 고찰". 『디자인학 연구. Vol 13』. 한국디자인학회(1996)
- Faber Birren. 『COLOR & HUMAN RESPONSE』. New York: VNR Co. (1978)
- Helen Varley ed. 『COLOUR』. London: Marshall Editions. (1980)
- Jean-Paul Favre, André November. 『COLOR and COMMUNICATION』. Zurich: ABC Verlag(1979)
- Johannes Itten. 『THE ART OF COLOR』. New York:

VNR Co. (1973)

· ————. 『THE ELEMENT OF COLOR』. New York; VNR Co. (1970)

· Maitland Graves. 『THE ART OF COLOR AND EDSIG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51)

· Paul Zelabski, Mary P. Fisher. 『COLOUR』, London; The Herbert Press LTD. (1989)

· William C. Libby. 『COLOR and THE STRUCTURAL SENSE』. N. J.; Prentice-Hall INC., (1974)

· Max Lüscher, Ian A. Scott. 竹村建一 譯. 『THE LÜSCHER COLOR TEST』. 東京; 講談社(1971)

· 關秀光 編. 『色彩管理』. 東京; 日刊工業新聞社(1968)

· 兵畑紀. 『色彩生理心理學』. 名古屋; 黎明書房(1976)

· 星野昌一. 『色彩調和と配色』. 東京; 丸善株式會社(1961)

· 大智 浩. 『デザインの色彩計劃』. 東京; 美術出版社(1967)

· 大串不二雄 外. 『建築の色彩計劃/學校建築編』. 東京; 日本色研事業株式會社(1970)

· 색표류

· 권장. 『색명대사전』. 한국색채연구소(1964)

· KBS한국색채연구소 편. 『한국표준색표집』. KBS문화사업단 (1991)

· KBS미술정보센터 편. 광대웅 해설. 『KBS표준색표』. 한국방송공사(1988)

· 한국표준연구소 편. 『표준색모음』. 한국섬유산업연합회(1988)

· 한국색채 편. 『색채학을 위한 종이나라 77 COLORS』 (1991, 1993, 1995)

· 『MUNSELL BOOK OF COLOR』. Baltimore; MUNSELL COLOR MACBETH(1976)

· 太田昭雄 外 編. 『PCCS標準色彩圖表A』. 東京; 日本色研事業株式會社(1981)

· 日本色彩研究所 編. 『建築デザイン色票』. 東京; 日本色研事業株式會社(1973)

· ————. 『JIS標準色票』. 日本規格協會(1987)

· ————. 『色名事典』. 日本色研事業株式會社(1973)

· 日本色研事業株式會社 編. 『配色カード129b』 (1991)

요약

대학의 조형예술 교육에서 창의력의 배양과 표현기술의 역량을 양성하기 위한 색채교육은 형태교육과 평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의 색채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형태교육에 비하여 색채교육의 모든 여건은 열악한 상태에 있다. 그 문제점은 우선 조형예술 교육의 교과과정이 형태교육중심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색채교육 과목은 조형언어로서 색채언어의 특성에 맞는 실험적 체험교육으로가 아니라 이론과목 일변도로 이루어져 그 교육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선진국 대학과 국내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색채과목을 비교해 보면 국내 대학이 개설종목이나 학점 수와 수업시간 수의 배당에서 모두 열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발견된다. 특히 색채교과목이 기초과정에서 발전과정으로, 다시 심화과정에 이르는 단계적 교육과목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다.

또한 색채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이 희박하며, 교육환경 및 교육도구와 교재의 충실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녔다.

뿐만 아니라 전공영역의 구분에 관계없이 일반적 기초 색채이론의 강의로 머물고 있는 폐단이 크다.

따라서 색채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서는 색채교육이 형태 중심의 교과목의 비중을 상충하는 실험실습의 시행과 교육량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교과과정의 합리화와 색채교육 전담교수제를 도입하여 교육의 심도를 높이며, 세분된 전공에 따른 색채교육내용의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

특히 색채교육 전담교수제도의 도입은 효율있는 교육방법, 전공별로 적합한 교육범위의 설정, 심도있는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시설 및 도구, 교재)의 개선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